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2022.07.12

[1]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배경

정부는 2022. 7. 5. (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2030년 전체 발전 중 원전비중 30% 이상 등 에너지믹스 재정립,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한 자원안보체계 구축,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직접전력거래(PPA) 확대를 통한 전기 독점판매구조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 새정부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주요 내용

구분	정책 내용	상세 내용
에너지믹스 재정립	원전 비중 확대	• 신한울 34호기 건설 신속 추진, 원전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 전체 발전 중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재생에너지 비중 조정	• 실현가능성주민주용성 고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적정 비중 도출 ※ 현재 수립 중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전력망 구축	• 재생에너지 계통 안정화 방안 마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자원 안보	특별법 제정	•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자원안보위원회, 자원안보센터 등) 구축, 자원안보 범위 확대 ※ 핵심자원(석유, 가스, 석탄)뿐 아니라 광물, 수소, 재생에너지, 우라늄 등도 자원안보 범위에 포함
	석유가스	• 정부 비축유 확대, LNG 저장시설 확대, 가스공사 저장시설 민간공동이용 확대, 민간 LNG 직수입 확대 등 추진
에너지 수요 효율화	기업 수요 관리	• 연간 20만 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 기업 대상 효율혁신 목표설정 협약 추진
	수송부문 관리	• 전기자동차 전비(電費) 등급제,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전력시장 구조 개선	시장 독점 해소	• 직접전력거래(PPA) 허용범위 확대 통해 독점판매구조 점진적 해소
	전기요금	• 단계적 가격입찰제(PBP) 전환 및 수요측(판매사업자 등)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 • 총괄원가 보상원칙 확립 및 원가연계형 요금 확대

[3] 시사점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명시적으로 “본 정책 방향이 2017. 10.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2019. 6. 「제3차 에너지기본 계획」 등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원전을 18기('21년 기준 24기)로 줄이고 전체 발전 비중 중 원전의 비중을 23.9%('21년 기준 27.4%)로 조정하기로 한 이전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전을 28기로 늘려 전체 발전 중 원전 비중이 30% 이상 이 되도록 하는 등 새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태양광풍력 등의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할 만한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실행에 있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목표 하에 직접전력거래(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직접전력거래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 종류나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등 이에 관한 추가적인 입법 과정도 계속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해상풍력 “속도조절론”, 풍력발전 관련 인허가 및 관련 행정절차 지원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도입 예정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당분간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정부가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상용화 R&D, IoT빅데이터 기반의 해상풍력 O&M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도 한만큼, 신재생에너지 업계로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Band 1 팀이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자원 기업의 인수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관련 인허가금융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New Government Energy Policy Direction

관련구성원

이상현

변호사

02-316-4068

정수용

변호사

02-316-4345

shlee@shinkim.com

syjung@shinkim.com

양승규

변호사

02-316-4048

sgyang@shinkim.com

류재욱

변호사

02-316-1635

jwryu@shinkim.com

조현미

변호사

02-316-1643

hmcho@shinkim.com

박희훈

변호사

02-316-7917

hhpark@shinkim.com